

뿌옇

[뽕]의 옛말

두 발을 모아 몸을 숙구쳐 앞으로 나아가는 몸짓을 뜻하는 말로
높은 곳으로 오르거나 넘어서는 KT노동조합의 위상을 상징

뿌옇

KT노동조합 소식지
2010 Vol.3



나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책임지는 로하스 생활

● 주말이면 대형마트에 장 보러들 가지죠?
마트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어느새
카트를 가득 채운 제품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나요?

나에게 꼭 필요한 제품인지,
재생 가능한 원료를 사용했는지,
친환경 제품인지..
따져 볼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알고 보면 참 쉽습니다.
과일과 야채는 유기농, 저농약 제품으로 구입합니다.
가족의 건강뿐만 아니라 땅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로컬 푸드일수록 더 유익하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평에서 온 포도가 칠레에서 온 포도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포장은 작고 간소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일회용 용기 제품도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종이컵 생산에만 한해 8만 톤의 천연펄프가
수입됩니다.

나무 1500만 그루가 잘려 나가는 셈이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거대한 공생 공영의
동반자입니다.

로하스 생활,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풍요로워지는 건강한 소비문화입니다.



Contents | 2010 Vol.3 |

KTTU 활동일지

2010년도 단체교섭 시작	04
KT 신입사원 연수기	06
H2O 청소년 IT 여름캠프 개최	08

일하는 멋

Interview	KT개인고객부문 표현명 사장	10
기획특집	아시아의 작은 스위스 'KT대관령수련관'	14
여성만세	배우 신애라 인터뷰	18
KTTU 포커스	퇴직사우 한경덕 공인중개사	22

사는 멋

KTTU 지방본부탐방기	부산지방본부	24
KTTU 지부탐방기	강원지방본부 원주NSC지부	28
KTTU 현장	원주NSC지부 원주운용팀 정석중 조합원	34
	서광주 상무지부 SOHO컨설팅팀 김재철 조합원	36
Partner	KT텔레캅노동조합	38

즐기는 멋

Space Touch 1	자연을 벗 삼아 페달을 밟다 _ KT MTB동호회	40
Space Touch 2	다가오는 시즌엔 우승뿐이다 _ KT소닉붐 농구단	44
	KT소닉붐 응원리더 '올레건'	47
Space Touch 3	여름휴가 사진 콘테스트	48

KT노동조합 소식지 2010 Vol.3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KT노동조합의 허락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김구현 편집인 | KT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허진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KT노동조합 031-727-2820 발행일 | 2010년 10월 4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문화재단 02-3414-2053 인쇄 | 삼림인쇄 02-469-7111

2010 단체교섭 시작 노동조합 8대 요구안 일괄상정

2010년도 단체교섭이 시작됐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9월 15일 정회한 1차 본회의를 29일 속개하고 '2010년도 단체교섭 8대 요구안'을 일괄상정 시켰습니다. 노동조합의 8대 요구는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한 임금·복지·기타분야의 개선책입니다.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하며, 노동조합은 8대 요구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I. 9월 15일... 단체교섭 1차 본회의, 진통 끝 정회

노동조합 “8대 요구안 일괄상정” vs 회사 “사측 안전도 상정” 주장

노동조합과 회사는 9월 15일(수) 오후 3시 '2010 단체교섭 1차 본회의'를 개최했으나 첫 회의부터 안전상정을 둘러싸고 마찰이 거듭 되, 4시 15분경 정회했다. 노동조합은 8대 요구안을 설명한 뒤 일괄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위원들은 일괄상정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한 채, 회사측 안전 상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고유 권한 이라고 강조하고, 8대 요구안 상정 후 이에 대한 회사측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계속해서 사측 안전 상정을 주장, 노사는 계속되는 공방 끝에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1차 본회의를 정회기로 합의했다.

II. 9월 29일... 노동조합 8대 요구안 일괄상정

노동조합, 사측의 단체교섭 원칙·절차 무시 질타 임금부문부터 빼격... 경영진 무책임 발언 잇따라

노동조합과 회사는 9월 29일(수) 오후 2시 분당 본사 5층



회의실에서 '2010 단체교섭 1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했다.

회사 공방끝 “8대 요구안 상정, 조건 없이 수용”

본회의 초반, 회사는 지난 정회기간 동안 노사간 논의한 내용을 공개했으나 노동조합 8대 요구안 상정과 함께 성과연동제 등 인사복지관련 제도보완 논의를 조건부로 요구, 회의를 원점으로 돌리며 경직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사측 안전도 상정할 수 있다”며 단체협약에 명기된 교섭의 절차, 원칙, 과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원성을 샀다.

결국 오후 3시 38분, 사과와 공방을 거듭한 뒤 회사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8대 요구안 상정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했고, 곧바로 노동조합 8대 요구안을 일괄 상정했다.

노동조합 “9개월된 인사보수제도에 또 칼을?” 성토

잠시 정회 후 본격적인 본교섭이 진행됐다. 노사는 8대 안전 중 임금분야부터 순차적으로 토의해 나가기로 했으나 초반부터 마찰이 거듭됐다.

노동조합은 8대 요구안 중 임금분야인 ▲고과등급 분포율 상위등급 확대조정과 ▲급식통근비 증액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합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는 현 인사보수제도도 좋지만 고과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더 좋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거듭했다. 이에 노측 위원들은 “노동조합은 지난 9년간 연봉제 도입을 거부해 오다 KTF와의 통합시너지 발현, 글로벌 KT로의 도약을 기대하며 대응적 결단을 내렸는데, 경영진은 9개월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고 다시 칼질을 주장하니”고 성토했다. 계속되는 공방에 노동조합은 회사가 밝히는 ‘더 좋은 방향’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다. 결국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8시 40분 1차 본회의를 폐회했다.

한편, 2010 단체교섭 본회의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간 필요 시 횡수를 조정기로 합의했다.

2010 단체교섭 8대 요구안

임금 분야

1. 고과등급 분포율 개선(A/B/C/D/F)
(5%/15%60%15%5%→10%/20%55%10%5%)
2. 급식통근보조비 35만원 정액 지급
(급식7천원/통근5천원→급식8천원/통근 9천원)

복지 분야

3. 복지기금 737억원 출연
(세전당기순이익(5%,278억)+별도출연금(109억)+
운용자금(350억))
4. 각종 복지제도 지원 및 확대
 - 신설: 상조비 지원 및 중고등자녀 교육보조비
 - 확대: 의료비, 단체보험, 건강진단 등
 - 개선: 대부 이자율 인하 및 기준완화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기타 분야

5. ESOP제도를 통한 주식 50주 무상 출연
6. 퇴직연금도입 및 중간정산제(희망자 한) 실시
7. 전 직원 아이패드 지급
8. 전 직원 일체복 지급

신입사원 연수기 _ KT의 새얼굴들을 만나다

새로움이란 말은 언제 들어도 신선한 느낌을 준다. 그것은 '새로움'이란 말이 일상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 그 파동은 다름 아닌 셀레임이다.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는 일 또한 셀레임을 갖게 한다. 187명의 새로운 얼굴. 올해 새롭게 뽑힌 신입사원 한명 한명의 신선하고 생기발랄한 얼굴들을 만나보았다.



최훈, 27

연수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진한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비록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인 184명의 연수생들과 끈끈한 정을 나누게 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폭우 속 8시간의 치악산 등반을 통해 끈기와 의지를 함께 불태우기도 했어요. 하산 후 동료들과 땀범벅인 채로 막걸리 한 잔을 마셨는데,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위원장님의 강연! 노동조합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죠. 다만 아쉬운 것은 강연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조

'합격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곤 몹시 기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한마디로 기분 짱이었죠. 합격 후엔 곧바로 신입사원 연수를 받게 됐는데, 연수 프로그램 중 직접 현장 체험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존의 사원 분들과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를 정말 많이 챙겨주시더군요. 귀찮은 내색 없이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고 커피도 타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덕분에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많은 것을 나눠주는,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내장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은주, 26



정영호, 27

소통의 기본은 '진심'이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연수를 받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동학교에 가서 봉사체험을 한 것이었어요. 일회성 방문이 많아서인지 처음엔 아이들이 경계하고 잘 웃지도 않았는데, 소통이 반복되면서 점차 마음을 열고 활짝 웃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죠. 회사로선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낮은 곳을 돌아보고 보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가를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여러 좋은 활동을 벌이는 노동조합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더 나아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그루터기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2010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대상 노동조합 특강

노동조합의 역사와 조직현황 등 소개



노동조합은 9월 13일(월) KT원주 리더십아카데미에서 2010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184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는 김구현 위원장을 비롯해 차완규 정책기획실장, 허진 교육선전실장, 한호섭 복지국장 등이 강사로 나섰다. 김구현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의 역사와 조직현황, 운영방식, 그리고 10대 집행부 노동운동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한 뒤 현업 배치 후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지부를 찾아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노동조합 신입사원대상 교육은 단체협약 제37조에 2시간을 할애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꿈과 희망의 '1박2일'

'H₂O 청소년 IT 여름캠프' 개최

한 여름의 더위가 이어지던 8월,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청소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호스트 운동의 일환인 'KT H₂O 청소년 IT 여름캠프'에 참석한 아이들의 목소리였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여름캠프는 대전 NSC 견학, 레크리에이션, 풍등 날리기, 감성교육, 희망풍선 날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더욱 부풀어 오른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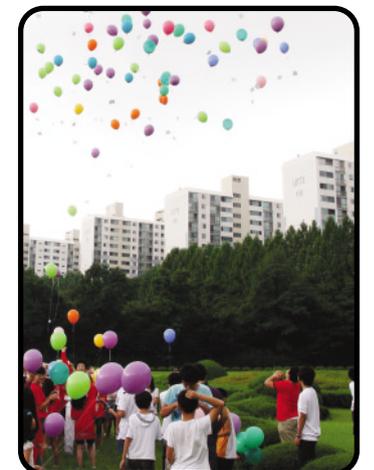
- _ 노동조합은 지난 8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1박2일 동안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KT H₂O 청소년 IT 여름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호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KT노사가 후원하는 전국의 장학생들과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소년소녀 가장 100여 명을 초청,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김구현 위원장은 개최사를 통해 "이 행사는

KT노동조합과 회사가 호스트운동과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자신감을 충전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KT노동조합은 이러한 크고 작은 시도를 통해 열정과 도전 그리고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를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키워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첫날 대전 NSC를 방문해 시외전송시설, 인터넷 및 시내전송



H₂O 청소년 IT 여름캠프

시설, 국제교환시설, 114안내센터 등 KT의 주요 통신시설을 견학했으며,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전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어소은 양은 "대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난생 처음 슈퍼컴퓨터를 직접 볼 수 있었고, 114안내센터에서 안내원 옆에 앉아 직접 통화내용을 들어볼 수도 있어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라면서 "전국에서 찾아온 또래 아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기뻐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 시흥초등학교 5학년인 정보라 양은 "장기자랑 시간에 오늘 처음 본 친구와 짝을 이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어요."라면서 "경품으로 받은 문화상품권으로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책을 사볼 생각이예요."라고 말했다. 둘째 날에는 홈채널본부 감창연 사내 강사의 강연으로 청소년들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북돋았다. 감 강사는 링컨, 마틴루터킹, 박지성 등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이룬 사람들을 예로 들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자신들의 꿈을 적어 풍선에 매달아 하늘로 띄우는 프로그램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대전 인재개발원의 잔디밭에서 일제히 날아오른 100여 개의 풍선들은 다채로운 빛깔로 하늘을 수놓았다. 진주 축석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신해성 군은 "친구들의 희망을 매달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풍선을 보니 제 소원도 이뤄질 것만 같아요."라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볶음밥 등을 잘 만들어요. 나중에 꼭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국내 IT업계 갈라파고스를 깨뜨린 표현명 사장과 토크

내 손안의 PC로 불리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업계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진화와 함께 KT가 국내 스마트폰 쇼크를 일으켰고, 국내 통신업계뿐만 아니라 국내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바람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고객부문 표현명 사장을 만나보았다.



KT개인고객부문 표현명 사장

Q IT 업계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우리 KT의 청사진은 무엇인가요?

A (A) 과거 일반폰(Feature Phone)시대에서는 단말 라인업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거대 단말 제조업체와 1위 통신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KT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다 보니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나가려면 스마트폰 경쟁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경쟁은 단순히 단말기가 아니라 다음 4가지 요소를 갖추는 것입니다. 단말기, 탄탄한 통신인프라,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 그리고 요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요소를 고려해 시장경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준비해왔고 그 싸움을

KT는 세계 최고 수준인 Wifi를 3만6천여 국소를 설치했습니다. 연말까지 4만여 국소, 내년까지 10만여 국소설치가 목표입니다. 이는 국내 단위면적을 가늠해봤을 때 세계 최고의 Wifi 원더랜드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KT는 단말기 측면에서 아이폰이라는 중요한 무기를 갖게 됐고, 통신인프라 측면에서는 경쟁사가 3G만을 고집할 때, 우리는 3W(WiFi, Wibro, Wcdma:3G)를, 요금 측면에서도 경쟁사보다 저렴한 무선데이터 요금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0만 개의 어플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폰 앱스토어(APP.store)가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한 올레마켓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4가지 측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KT가 다시 고객으로부터 사랑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마트폰 리더십이 침체된 IT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재도약이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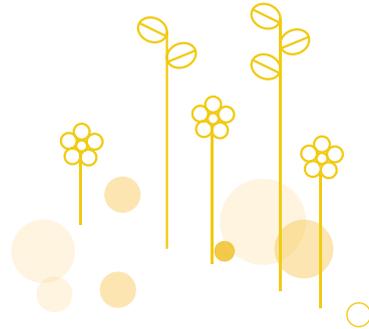
또한 그 동안 우리가 주력했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만 회사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택했었지만, 통신환경이 모바일로 점차 바뀌면서 스마트폰과 클라우드컴퓨팅을 접목시켜 새로운 'U클라우드' 라는 컨버전스 상품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구글보다 더 저렴한 가격과 최단 시일에 구축했다는 것이 과히 혁명적인 성과입니다.

Q 미래통신 네트워크의 요체인 '모바일 원더랜드'가 뭔가요?

A 스마트폰 시장은 작년까지 40~50만, 올해는 500~600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0배 이상이 커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KT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스마트폰은 일반폰보다 21배 이상의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최근 아이패드를 비롯한 K패드 등 패드류 단말이 출시되고, 여기에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하는 고객은 초고속인터넷이나 무선인터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바일 클라우드도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구글TV, 아이TV, 스마트TV도 궁극적으로는 모바일IP가 될 텐데, 이런 단말기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수용하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KT는 이미 세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Wifi를 3만6천여 국소를 설치했습니다. 연말까지 4만여 국소, 내년까지 10만여 국소설치가 목표입니다. 이는 국내 단위면적을 가늠해봤을 때 세계 최고의 Wifi 원더랜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KT가 강력한 유선인프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사가 감히 따라오기 어렵다는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KT노동조합에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적 신노사문화선언, 호스트운동, H2O운동 등 최근에는 KT가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Wibro는 모바일-Wif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65% 이상이 Wifi를 선호하고 있고 우리는 고객에게 Wibro를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Wifi라고 쉽게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출시한 아이폰4를 사용하여 Wifi존에서 페이스타임이라는 영상전화를 3G의 4배 이상 좋은 화질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fi와 Wibro를 새롭게 재정립하여 향후 데이터폭발이 가져올 가까운 미래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바일 원터랜드'입니다.

Q 트위터 경영으로 유명하신데, 처음 트위터를 하시게 된 계기와 언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A 이동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때 손에 쥘 것이 아이폰이었습니다. 문서 결재와 이메일 체크, 또 트위터 하는데 가장 편리한 것이 아이폰입니다. 그때부터 트위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정치인들도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트위터를 활용하고 있었기에 다른 임원들에게도 트위터 하는 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트위터는 시간을 많이 소비할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차에 타서 주로 이동 시 에그를 이용하거나 3G를 이용해 트위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집에서 소위 '광풍트윗'이라고 해서 한번 몰아치면 3~4시간을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답변을 제가 직접하고 있고, 전략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마케팅의 기회로 삼고 답변을 달면서 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경영을 직접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VOC를 실무라인에서 보고받는 것보다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더 빨리 알 수 있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스개지만 아이폰4 출시지연 때문에 트위터에서 제 별명이 '표변명', '표구라', '표미안', '표죄송', '표미정', '표미적'이 됐었던 사연도 있습니다.(웃음)

Q 올바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이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 사장님이 생각하는 경영진의 노력과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무엇일까요?

A 저는 KT노동조합에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적 신노사문화선언, 호스트운동, H2O운동 등 최근에는 KT가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 또 이를 통해 종사원 개인이 그만큼 가치를 나누는 모습. 이런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서로 힘을 합치고 거기서 얻는 여러 가지 가치를 공유한다면 분명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의 발전적인 모습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경영진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현장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Wifi 국소설치, Wibro 고속도로개통 등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KT가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의 땀방울의 결과입니다. 모든 종사원들과 경영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간다면 최고의 KT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아의 작은 스위스 '대관령'에서 날아온 초대장



산과 산들이 첩첩해지고, 높아진 고도에 귀가 멍멍해진다. 알싸하고 상쾌한 공기는 코끝을 스치고, 알프스 샬레 스타일의 정겨운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대관령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KT대관령수련관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아담한 모습으로 서 있다.

인체 내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한다는 의미의 디톡스(detox). KT 조합원들의 디톡스를 책임질 KT수련관은 대관령, 거제, 경주, 지리산, 도고 등 전국에 5곳이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대관령을 찾았다. 대관령 수련관이 위치한 강원도 평창은 '아시아의 작은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디톡스 라이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인체에 가장 적합한 기압으로 생체리듬에 좋다는 해발고도 700m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태백산맥에서 뿜어 나온 고산준령은 울울창창한 숲을 품어 피톤치드를 뿜어내고, 계곡 사이사이로 흐르는

물줄기는 맑고 투명하니 몸이 먼저 알고 반긴다.

대관령 수련관 입구에 서니 아담한 화단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최성용 센터장을 비롯한 수련관 직원들이 직접 꾸민 것이란다. 사계절 꽃을 피우는 베고니아를 비롯해 대관령 지역에서 자라는 야생화, 산나물들은 로비에서 뒤편의 후정까지 이어진다. 고객들이 먼 길을 나서지 않아도 자연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배려한 수련관 직원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최 센터장은 "산에서 직접 캐오고, 버려진 화분을 주워오는 등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로지 정성만으로 조성한 것이예요. 수련관의 화사한 분위기를 위해 직원들이 손수 마련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죠."라며 뿌듯해했다.

안내를 받아 올라간 객실에서는 넉넉한 거실과 포근한 느낌의 방이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전해준다. 부엌에는 식탁과 식기를 비롯한 각종 주방기구들이 완비돼 있고, 커튼을 젖히면 고즈넉한 마을 뒤로 산자락이 파도치듯 밀려간다. 필요한 것은 떠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뿐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지하로 내려가니 온갖 편의시설들로 가득하다. 구내편의점,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오락실, PC방 등이 웅기종기 모여 있어 굳이 밖을 나설 필요가 없을 정도다.

2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널찍한 식당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이다. 황태가 유명한 대관령답게 황태해장국, 황태양념구이, 황태미역국 등이 월 10회 이상 식탁에 오르고, 여름에는 방아다리약수터에서 떠온 약수로 삼계탕을 끓여내기도 한다. 대관령 수련관이 가장 붐비는 시즌은 아무래도 겨울이다. 평창은 연평균 적설량이 250cm에 달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4월 초순까지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동계 시즌만



수련관 내부전경



수련관 안내데스크



KT대관령수련관 최성용 센터장과 직원들



스크린 골프 연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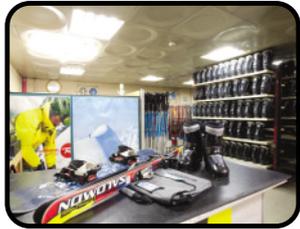


수련관 2층 휴게실



사우나 시설

KT대관령수련관을 찾았다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대관령 양떼목장, 대관령 옛길, 발왕산(곤돌라)을 꼽는다. 최성용 센터장은 “평창의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이 세 곳을 추천하며, 특히 용평리조트에 있는 발왕산 곤돌라는 50% 할인된 요금에 이용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죠.”라며 자랑을 아끼지 않는다.



스키·보드 장비대여실

되면 수련관 지하 1층의 스키대여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외부 대여소 요금의 30% 수준에서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를 빌릴 수 있으니 스키 마니아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는 셈이다.

여름도 만만치 않다. 고산지대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냉방시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여름에도 선선해 ‘피서’의 의미에 가장 적합한 휴양지이기 때문. 대관령 수련관 김종수 서비스운영팀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평창은 평균 약 5°C 정도 낮은 고산 기후를 보여줍니다. 객실마다 에어컨이 비치되어 있지만 연중 일주일 정도만 가동되고 있을 정도이죠. 한여름에도 꼭 긴팔 옷을 챙겨 오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리조트에 마련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동해로 달려가면 경포, 낙산, 망상 해수욕장이 즐비하다. 수항계곡, 장전계곡, 동강에서의 래프팅은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니 그 인기는 겨울 못지않다.

그러나 강원도의 매력이 어디 여름과 겨울뿐이라. 꽃이 만발하고 새싹이 피어나는 봄에는 강릉에서 경포대 벚꽃축제와 강릉단오제가 펼쳐지고, 평창에서는 산나물 축제가 봄의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는다. 여기에 사계절 내내 근사한 풍경을 선사하는 오대산 월정사와 전나무 숲길, 삼양대관령목장 등 굽직한 볼거리들이 더해지니 굳이 계절을 따질 이유가 없다.

KT대관령수련관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275-1
문의 | 033-336-0170, www.cowels.co.kr

Interview KT대관령수련관 최성용 센터장

● 최성용 센터장의 하루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것이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톨스토이의 명언을 언제나 가슴 속에 새기며 업무에 임하는 그. 최 센터장의 얼굴엔 친절이라는 이름의 미소가 떠나질 않는 것 같다. 그는 “수련관의 존재 가치는 고객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객의 마음을 살피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올해 7월에는 서비스접점부서에 근무하는 22명의 전 직원이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물론 자격증을 땀죠!” 수련관 입소 전 환영 문자를 보내고, 퇴소 시에는 현관에서 배웅하는 것은 물론 퇴소후에도 안부 쪽지를 발송한다. 고객이 멀리 있을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즐거움을 KT 조합원들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가을과 겨울에도 대관령 수련관을 찾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KT대관령수련관 주변의 추천 맛집



황태회관 주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348-4 문의 | 033-335-5795
대관령 황계리는 겨울만 되면 진풍경이 펼쳐진다. 황태덕장에 가득히 내걸린 명태 위로 하얀 눈이 내려 쌓이면 그만한 볼거리가 없다. 추위와 햇살에 얼고 녹기를 3개월 정도 반복하면 포슬포슬하고 노란 빛을 띠는 연한 육질의 황태가 만들어진다. 황태회관은 황계리에 있는 몇몇 황태 음식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으로 꼽힌다. 황태찜(대35,000원), 황태불고기(대35,000원), 황태해장국(6,000원) 등 황태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가 있다.



이촌밭부자네 주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461 문의 | 033-336-4640
강원도와 감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이다. 그 가운데 감자옹심이든 독특한 모양과 담백한 맛으로 강원도의 별미로 꼽힌다. 삼양대관령목장으로 가다보면 길가에 허름한 반원형 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이촌센터’라고만 쓰여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 주문을 하자마자 생감자를 갈아 반죽해 옹심을 만드는 이촌밭부자네의 감자 맛은 평창에서도 최고로 친다. 메밀국수가 들어간 옹심이칼국수, 메밀칼국수, 메밀만두국, 감자전(2장), 메밀전(3장)이 모두 5,000원으로 가격도 저렴하다.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그저 마음을 내어줬을 뿐.

배우 신애라는 주기적으로 따뜻한 불씨를 피워 올림으로써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낮은 곳의 누군가가 내민 손을 가만히 잡아줌으로써 외려 자신이 행복해지는 기적을 체험한다.



_신애라는 인터뷰 요청을 받기는 연예인은 아니다. 직업 탓에 대중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혹시나 생길 오해의 소지나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늘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 널린 다양한 삶을 보면서 마음을 비우는 방법 역시 터득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평가이니까.

“저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우연히 봉사활동에 참가했다가, 돌아와서도 그 얼굴이 아른거려 계속하게 된 것 뿐이에요.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굶주리면 배고프고,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고, 상처 받으면 아프고... 밝든 어둡든 미래가 존재하는 똑같은 아이들이지요.”

_살아가는 일 자체가 형벌이자 전쟁인 아이들. 그들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살고 있을법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엄연히 실재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 만나지 않은 내 아이나 다를 것이 없다. 신애라는 그래서 더욱 외면할 수 없었노라고 했다.

“제가 후원하는 아이는 아니었고, 다른 분에게 후원을 받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어 있더군요. 고난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친구를 지탱해 주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후원자로부터 받은 편지였답니다. 그 편지에 ‘사랑한다.’ 고 써어있더라고요. 자신의 부모한테조차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피가 섞이지 않은 그분에게 난생 처음으로 들어본 거죠. 머나 먼 다른 나라의 누군가가 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그 친구에겐 커다란 힘이 됐던 겁니다.”

_후원을 받았던 아이는 대개 어른이 되어 자신이 받았던 마음과 정성을 다시 어려운 아이들에게 되돌려준다. 사랑을 경험해 보았기에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돌고 돌아 더 큰 진폭으로 공명하고 전이된다.

“후원하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게 되면서 입양도 결정했어요. 간혹, ‘배에서 태어난 아이와 가슴에서 태어난 아이가 정말 한 치도 다르지 않느냐?’ 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전혀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정민이가 그렇듯 예은이와 예진이 역시 우리 부부에게 내려 온 축복이고, 처음엔 남이었던 남편과 제가 만나 가족이 된 것처럼 지금은 누가 뭐라던 제 금쪽같은 딸들이자 가족이니까요.”

입양을 주저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훗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행여 없을까.

“그건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작게나마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희 부부는 거의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예은이, 예진이에게 말합니다. ‘너를 이렇게 입양으로

보내주셔서 엄마, 아빠는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고요. 입양 앞에 항상 좋은 말을 붙이고,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키우니 큰 걱정은 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 커서 부모를 외면하고 속을 썩이는 건 아닐까,’ 미리 우려하시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식 키우면서 ‘아이가 어른이 돼서 부모 공을 모르면 어떡하나’ 불안해하진 않잖아요. 너무 미래까지 기대하거나 멀리 앞서 가지만 않는다면, 입양은 그리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된 아이들의 인생은 그네들의 몫이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몫을 다하고 사랑을 듬뿍 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결혼 16년 차가 된 신애라. 살면 살수록 더 좋아진다는 자타공인 잉꼬부부지만, 아무렴 남편 차인표가 다 좋기만 할까 싶다.

“점점 사랑이 깊어져요. 물론 제가 그렇듯 애들 아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단점도 있고요. 다만 이 사람과 살아오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셨구나.’ 서로가 서로의 부족하고 못한 모습을 오롯이 다 보면서도, 불쌍히 여겨지고 애뜻해지고 보듬게 되니 부부의 연은 연인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KT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후원과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나라에 가보면, 후원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아이를 후원하는 매달 3만여 원의 돈이 의외로 많은 것을 가능케 하거든요. 게다가 얼핏 보면 후원자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받는 것이 참 많아요. 아이가 보내는 사진이나 편지를 통해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문득 문득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평생 체감하고 살아야 할 공기 같은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흔히 부나 사회적 지위, 세상의 인정과 성공이 곧 생의 위력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이고, 생을 충만하게 채우는 위력을 가진 것 역시 사랑뿐이다. 신애라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KT’,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퍼스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한경덕(퇴직사우)



● KT에서 30년을 보낸 한경덕 퍼스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에게 KT는 단지 ‘옛 직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에게 KT는 향수를 자극하는 풋풋한 고향이자 일상의 얼굴이며, 또 다른 희망을 상징하는 미래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용기였죠. 3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막상 퇴직하고 나니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1973년 입사, 동대문 전화국을 시작으로 노량진, 구로, 봉천, 여의도를 거쳐 마지막 근무지였던 관악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KT 곳곳의 역사와 오랫동안 함께한 그였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던 차에 마침 회사의 명예퇴직 공고를 만났고, 지난 2003년 10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고객센터에서 미련 없이 이별을 고했다. 당시 나이 49세. 어찌하나... 전전공공하기를 두 달, 선배의 한 마디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차라리 학원이라도 가서 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퇴직한 동료와 공인중개사 학원에 등록을 했고 2004년 11월 드디어 첫 시험을 치렀다. 결과는 불합격. 0.7%라는 합격률로 사상 초유의 집단 불합격자를 배출했던 바로 그 시험이었다. 당시 결과에 반발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여의도 공원 규탄대회 현장, 문득 KT 여의도지사가 눈에 들어왔다. 반가움도 잠시, 묘한 절망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게 이듬해 5월 추가시험, 드디어 기다리던 합격 소식이 찾아왔다. 당시 다른 학원을 다녔던 부인 역시 합격해 기쁨은 배가 됐다.



“사실 퇴직하고 나니 제 인생에 남는 건 KT밖에 없더군요. 일의 모든 과정에서 KT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제가 KT인들에게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무실을 낸지 6년째로 접어든 한경덕 퍼스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그는 퇴직 후에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일로 이만한 것도 없다고 힘주어 말한다. 물론 창업 초기엔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 그는 KT 퇴직사우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 과정에서 성공사례를 전달하고, 올해는 원주연수원에서 진행중인 NBP(New Business Planning) 과정에도 참석, 자신의 경험담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바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2월에는 공인중개사동우회 사이트인 KTLand를 오픈,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퇴직사우들과 재직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신뢰할 만한 공인중개사 학원과 제휴, 30% 할인을 비롯해 각종 혜택을 회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격증 취득에서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처음 20명에서 시작한 회원은 현재 749명, 입소문을 타고 있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KT에 근무 중인 후배들에게 미래를 위해 ‘자신만의 전문자격증을 준비하라’는 애정 어린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풋풋한 정과 의리가 물씬 풍기는, 그는 KT인이다!

KT공인중개사동우회인 KTLand는 <http://club.paran.com/ktland>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호우 조직국장, 황성관 사무국장, 임용식 교육홍보국장, 박상민 정의국장, 박호근 여성국장, 정윤모 부산지방본부위원장, 강동만 조사통계국장, 권상기 동부산NSC지부장, 김호겸 부산마케팅단지부장

“됐나? 됐다!” 이것이 바로 선봉 부산의 힘

부산지방본부를 찾은 날, 정윤모 부산지방본부 위원장을 비롯해 황성관 사무국장, 이호우 조직국장, 임용식 교육홍보국장, 강동만 조사통계국장, 박호근 여성국장 등 8명의 간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서 부산지방본부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졌다. 열혈, 강성 등의 강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부산. 과연 부산지방본부와 조합원들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부산은 ‘됐나? 됐다!’ 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할 때는 확실하게 하지요. 과거부터 ‘선봉 부산’ 을 구호로 뒀든 가장 앞장서는 곳이 부산지방본부였습니다.

말보다는 행동, 단합으로 하나 되는 열정

_ 부산 남자들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다. 부산 사나이 그것이다. 유독 부산 남자에게만 사나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는 무뚝뚝하면서 남자다움이 강해서일 것이다. 실제로 부산지방본부 간부들은 “부산 사나이들이 말을 잘 못한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부산 사람들이 투박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박호근 여성국장은 “투박해도 속정이 깊다”며 “겉으로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속정이 은근하고 마음이 깊어 항상 믿음이 간다”며 부산 사나이들을 한껏 치켜세웠다.

그렇다면 부산지방본부 조합원들은 어떨까. 정윤모 위원장은 “부산지방본부가 열혈, 강성 등 다소 강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지만 투박하면서도 정이 많고, 한번 결정되면 전 조합원이 일치단결하여 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장점”이라고 말한다.

“부산은 한마디로 ‘됐나? 됐다!’ 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할 때는 확실하게 하지요. 과거부터 ‘선봉 부산’ 을 구호로 뒀든 가장 앞장서는 곳이 부산지방본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성, 열혈 이미지가 뇌리에 박혔지요. 지금도 부산지방본부는 다양한 사안이나 논의에 늘 앞장서는 편인데, 그것이 우리 지방본부의 힘이고 특징입니다.”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고, 단합된 모습과 행동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과 열정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뜻이다.

소외계층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주력

_ 항상 조합원과 함께한다는 신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지방본부는 부산, 경남, 울산지역에 68개 지부를 두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부 수로, 조합원 수도 2,950여



명에 이른다.

부산지방본부는 올 상반기에 사내 전산망 저속도(2M) 제공 국사 해소, 신설단에 대한 구내식당 지원비 예산확보 및 지원, 현장 조직력 및 소통 강화 활동, 위원장 현장 활동 등 다양한 조합 활동을 펼쳤다. 그 중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이다. 내부적인 조합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회 약자들과 같이 하는 노동자,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_ 정윤모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역민과 아동들을 위해 노사합동은 물론 노동조합이 주최하거나 조합간부가 자체적으로 펼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부산지역의 타 단체 및 조합들과도 연대하여 KT노동조합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연탄배달 및 쌀 나눠주기, 불우아동 공부방 장관 및 도배 봉사,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제공, 노동조합에서 주최해 올해 처음 실시한 노사 YOUTH 장학사업, 저소득층 아이들과 함께한 H₂O 청소년 IT 여름캠프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행한 분기별 지방노사협의회도 눈길을 끈다. 정식 안건이 있건 없건 매 분기 정식 노사협의 및 노사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황성관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고충사항과 지부의 의견들을 빠짐없이 수용한다”며 “노동조합의 역할을 감안하면 이 역시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부산지방본부는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현장의 조기 안정화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부순회 및 조합원 간담회를 마련할 예정이고, 조합원들 간의 단합과 소통을 위해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나로 똘똘 뭉치는 단결력과 일사불란하게 일을 추진하는 저력이 있기에 부산지방본부의 앞날은 여전히 탄탄대로다.



Interview 부산지방본부 정윤모 위원장

사회적 참여 통해

• 함께하는 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에서 8~10대까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윤모 위원장은 지난 1991년 민주노조 열풍이 불던 당시, 노동조합을 바꾸고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남다른 각오로 남울산 지부장에 출마해 초대지부장을 역임했다. 조합 경력이 20년 가까이 됐지만, 그는 지금도 여전히 근로조건이나 복지 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조합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속된 조합원의 이익만을 대변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조합 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는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어떠한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합 활동 역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믿음은 무척 견고하고 단단하다. 온화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 속에 숨겨진 뛰어난 결단력과 추진력,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에 발 벗고 나서서 끝까지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모습에 감동받은 이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정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부산지방본부는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엄청난 조직력을 발휘한다. 특히 정윤모 위원장과 황성관 사무국장, 이호우 조직국장, 박호근 여성국장은 8~10대까지 동고동락해 눈빛과 표정만 봐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정윤모 위원장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조합원을 위해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조합원들도 조합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우리는 통(通)하였소이다!”

원주네트워크서비스센터(이하 원주NSC)지부



원주NSC지부를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통(通)’이다. 조합원과 조합간부와 지부장이 모두 통하였기 때문(!).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소통이 밑바탕을 이룰 때 진정한 의미의 단합이 가능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으며, 신뢰와 정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원주NSC지부의 ‘통’은 지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철학이다.



왼쪽부터 이윤주 사무부장, 오홍섭 집행위원, 변기봉 복지후생부장, 박재호 지부장, 이명희 여성부장, 유병환 교육홍보부장, 안성금 조사통계부장

- _ 여름이 땀을 흘리며 다가오는 가을을 시샘하던 어느 날, 원주NSC지부를 찾았다. KT 원주NSC와 건물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어서 지부 사무실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원주네트워크서비스센터 무선팀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박재호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을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공간도 협소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유난히 밝았다.

원주NSC는 기업고객, 공간사업과 초고속, 고객전송, 교환, 전원, 설로, 고정무선 마이크로웨이브 등의 소관시설 유지보수를 주 업무로 삼고 있다. 관할 지역은 강원도 전체를 아우른다. 북으로는 철원, 남으로는 영월, 동으로는 삼척의 갈남산, 그리고 도 경계를 넘어 충북 음성까지, ‘사고’가 터지면 천리를 마다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오홍섭 집행위원은 “강원 지역의 특성상 하루에 300km 이상 이동할 때도 있다.”면서 “NSC 조합원들은 잘 때도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잘 만큼 항상 긴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_ 원주NSC지부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번잡스러움처럼 내부적으로도 한바탕 혼란을 겪고 있다. 2009년 10대 집행부가 꾸려질 무렵 104명이었던 조합원이 최근 인력 개편을 통해 현재 57명으로 줄어들었다. 인원은 반 가까이 감축되었지만 업무의 양은 그대로였다. 남아 있는 이들이 떠안아야 할 업무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안성금 조사통계부장은 “운영팀 체제로 가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와 더불어 다른 직무까지 소화해내야 하는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야 했다.”면서 “회사 차원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멀티’ 로도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상황은 이렇듯 녹록하지 않건만 박재호 지부장과 8명의 조합간부가 이끄는 원주NSC지부는 활기가 넘친다. 이것은 10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조합원과 통(通)하는 지부’ 라는 슬로건이 지부의 문화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지부실을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지부장이 자리를 비울 때 행선지와 돌아오는 시간까지 메모해두는 등 조합원들에게 지부가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매주 요일을 정해 지부장이 팀별로 아침 미팅에 참석해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쫓긋 세우는 것도 ‘소통하는 지부’ 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희 여성부장은 “박 지부장은 마치 분신술을 부리듯 여러 곳에 나타난다.”면서 “어떤 때가 되어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합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지부장이다.”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변화로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원주NSC지부가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소통의 힘이 컸다. 서로 통(通)한 원주NSC 지부가 바라보고 있는 지부의 모습은 함께 움직이는 동(動)이다. 조합원, 조합간부, 지부장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신명나게 전진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통과 동을 거쳐 믿음에 가득한 ‘정(情)의 지부’ 로 나아가기 위해 원주NSC지부는 오늘도 뜨겁게 소통하고 있다.



Interview 원주NSC 박재호 지부장

원주 토박이 ‘감자바우’의 독심!



신뢰가 쌓였을 때 비로소 조합원들과 함께 전진하는 지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사람들을 친근하게 부를 때 ‘감자바우’ 라고 한다. 감자와 바위가 유난히 많은 강원도이니 자연스레 그리 부르게 된 것이다. 원주NSC의 박재호 지부장은 까무잡잡한 피부에 감자처럼 동그란 얼굴이 감자바우란 별칭에 꼭 들어맞는 인물이다. 바위 같은 독심으로 소통의 철학을 지금까지 밀고 온 박 지부장은 생감자처럼 단단하고 또 아무지다.

그가 KT에 첫발을 디딘 것은 1992년의 일이다. 강릉망운용국 대화 전송실에 발령을 받아 KT에 몸을 담은 것이 벌써 17년하고도 10개월이 훌쩍 지났다. 조합 활동의 시작은 1998년 중앙의 교전실장으로 올라간 원주망운용국 지부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았을 때였다. 박 지부장은 “그때는 조합과 조직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면서 “이후 세 번의 대의원직을 수행하며 얻은 경험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원주NSC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소통은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가 아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눈에 보이는 확연한 실체에 가깝다. 지부실의 휴게실화를 선언하며 조합원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고, 매주 수요일마다 팀별로 돌아가며 아침 미팅을 하고, 올해 9월부터는 금요일마다 평창, 영월, 횡성 등으로 장거리 아침 미팅에 나서고 있다. 지부장이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며 지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까지 꾸준히 올리고 있다. 박 지부장은 “블로그에 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은 물론, 제가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까지 마음을 담아 글을 쓴다.”면서 “팀장이나 실장급의 비조합원들과도 대화의 시간을 가져 노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곤 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원을 비롯해 조합간부, 지부장이 서로 통했을 때 지부는 조합원들을 대변할 수 있고, 이렇게 신뢰가 쌓였을 때 비로소 조합원들과 함께 전진하는 지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지부장이 꿈꾸는 지부는 소통과 신뢰를 통해 정으로 똘똘 뭉친 따뜻한 가족과도 같다. 어쩌면 그의 꿈은 이미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공공 숨겨놓은 원주의 별미 3選



옹기뜰가든

한방전복토종닭볶음탕이라는 긴 제목이 말해주듯 옹기뜰가든의 음식에는 몸에 좋기로 소문난 재료들이 듬뿍 담겨 있다. 감초, 오가피, 엄나무, 황귀, 당귀 등의 한약재와 닭뼈를 넣고 육수를 우려내고, 완도에서 가져온 전복을 넣어 담백한 맛을 더했다. 걸쭉하고 얼큰한 국물에 담긴 토실토실 살이 오른 닭고기와 통감자, 전복을 차례로 건져 먹는 맛이 일품이다. 한방전복토종닭볶음탕(45,000원) 외에도 한방전복토종닭백숙(45,000원), 한방전복삼계탕(13,000원) 등 다양한 메뉴가 마련돼 있다.

주소 |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616-1 문의 | 033-763-1616

청솔보리밥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청솔보리밥은 원주에서 보리밥으로 가장 유명한 맛집으로 꼽힌다. 고소하고 짭짤한 강된장을 한 숟갈 넣고, 매일 무쳐내는 갖가지 나물들을 찰진 보리밥에 얹어 씹씩 비비면 식사 준비 끝! 시원한 김치국과 배추 겉절이도 감칠맛 나고, 발에서 방금 따온 듯한 다양한 채소에 쌈을 싸먹어도 좋다. 보리밥(6,000원)에 도토리묵(6,000원)이나 감자전(6,000원)을 곁들이면 셋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른다고.

주소 |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122-18 문의 | 033-762-5298

토속한정식두부마을

원주시 행구동 일대에는 국산 콩으로 매일 아침 직접 두부를 만드는 음식점이 여럿 있는데, 이 가운데 토속한정식두부마을이 풍성한 차림의 두부한정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두부를 응고시킬 때 흔히 사용하는 간수를 쓰지 않고 동해의 바닷물을 이용해 깨끗한 흰색과 깔끔한 향이 일품인 두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두부한정식을 주문하면 두부구이, 도토리묵, 두부찌개 등을 모두 맛볼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높다. 두부한정식(10,000원) 외에도 두부전골(6,000원), 두부찌개(6,000원) 등을 단품으로 맛볼 수 있다.

주소 | 원주시 행구동 392-2 문의 | 033-734-5177



원주에서 만난 대하소설 <토지>

하동주니



원주NSC 박재호 지부장이 원주를 방문했다면 꼭 둘러봐야 한다며 안내한 곳은 '박경리문학공원'이었다. 박경리 선생과 원주라니, 소설의 무대인 하동과 작가가 태어난 통영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원주는 생소하기만 했다.

박경리 선생과 원주와의 인연은 김지하 시인으로부터 시작된다. 6·25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29살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 작가에게 남은 혈육은 딸 하나뿐이었다. 그 딸이 김지하 시인과 결혼해 정착한 곳이 강원도 원주였다. 당시 서울 정릉동에서 기거하던 박 선생은 소설 <토지>로 한창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팍팍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토지>는 서민들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세상의 관심이 온통 <토지>의 속편에 쏠려 있었던단다. 이즈음 박경리 선생이 딸과 외손자가 살고 있던 원주로 피신(?)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단구동에 새롭게 동지를 튼 작가는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토지> 4, 5부를 집필했다. 14년의 세월이 흘렀고, 단구동 옛집에는 작가의 손때가 진하게 배어들었다. 비로 한 번 주지 않고 손수 호미질을 해가며 집 마당에 텃밭을 일구고, 찾아오는 도둑고양이들을 내치지 않고 밥을 내어주며 작가는 <토지>를 써내려갔다.

집 마당으로 들어서니 박경리 선생이 밭일을 하다가 쉬곤 했다는 너른 바위 위에 선생의 동상이 앉아 있다. 그 옆에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일어난 듯한 고양이 조형물도 함께 있어 선생의 살아계셨을 적 풍경이 눈앞에 그려진다. 소설을 집필하던 방 책상에는 안경, 원고지, 만년필, 찻잔, 생전에 즐겨 피우셨다는 담배까지 전시되어 있다. 부엌에까지 책장을 놓고 수시로 원고지에 글을 적으셨다고 하니 박 선생의 집념과 열정을 엿볼 수 있다.

'박경리문학공원'에는 선생님의 옛집뿐 아니라 <토지>의 공간적 배경을 아담하게 꾸며 놓아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평사리 마당'과 '홍이동산'은 소설이 시작되는 경남 하동 악양면 평사리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 놓았고, '용두레벌'은 거칠고 사나운 만주벌판을 재현하고 있다. 최근 신축한 '박경리문학의 집'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사진을 통해 박경리 선생의 생전 모습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 박경리 선생이 텃밭을 일굴 때 사용하던 호미와 밀짚모자에서는 여전히 싱그러운 흙냄새가 전해져오는 듯하고, 손수 옷을 지을 때 돌리던 재봉틀과 직접 조각한 여인상은 선생의 남다른 손재주를 대변해준다. 5부작 <토지>를 일목요연하게 시간 순으로 정리한 공간은 3만 장이 넘는 원고지에 쏟아 부은 26년간의 땀방울이 담겨 있어 머리가 절로 숙여진다.

주소 주소 원주시 단구동 1620-5 문의 033-762-6843, www.tojipark.com



강원도의 흥반장, 아니 '정반장' 이 났다!

강원지방본부 원주NSC지부 원주운영팀 정석종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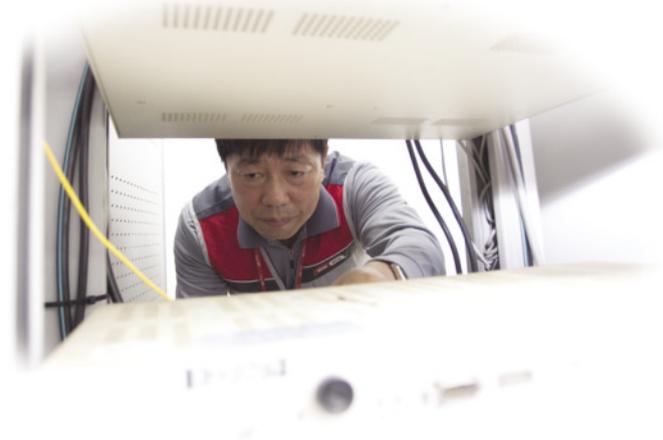
●

_ 김주혁, 엄정화 주연의 영화 <흥반장>을 봤다면 정석종 조합원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흥반장>의 본래 제목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흥반장>이다. 정석종 조합원이 바로 그렇다. 기지국은 물론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만능 기술자, 그의 다른 이름은 '정반장' 이다.

원주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한 기지국에서 정석종 조합원을 만났다. 그는 그 흔한 자판기 하나 찾아볼 수 없고, 마땅히 앉을 만한 곳도 없는 외진 곳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그가 KT에 처음 몸을 담은 것은 1985년 7월 15일의 일이다. 기지국을 포함하여 고객 전송시설 유지보수를 주 업무로 잔뼈가 굵었고, 강원 지역의 특성 상 군부대가 많아 군 통신 지원업무에 나서기도 했다.

그의 업무는 80% 이상이 외근이다. 담당 지역은 원주를 비롯해 횡성, 영월, 평창 등 강원도 전체를 아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영동고속국도의 와이브로

낙뢰 피해가 빈번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해야만 했어요. 저 멀리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개통 작업으로 쉴 틈 없는 나날을 보냈고, 9월 말부터 노후장비 개선 작업에 착수해 넓고 험한 강원도를 집 마당처럼 누비고 있다.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건만 지난여름을 생각하면 여유로운 편이란다. “본래 강원 지역이 국지성 호우도 많고 낙뢰도 잦아요. 올 여름에는 비도 많았고 태풍의 영향이 유난히 컸지요. 낙뢰 피해가 빈번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해야만 했어요. 저 멀리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가 원주에서 태어나 기지국과 고객 전송시설을 벗삼아 살아온 것이 벌써 25년째, 자신의 업무에 있어선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하지만 그는 요즘 바쁜 와중에도 공부에 여념이 없다. 최근 인력 개편을 통해

원주NSC 직원이 반 가까이 줄어들어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까지 소화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떠난 이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낮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올해 봄부터 '멀티' 를 준비해왔다. 5, 6월에만 고객전송, 무선전송, ALLIP 3개의 자격증을 손에 쥐었다. 올해 안으로 기간전송 자격증도 취득할 계획이다.

“7월 중순을 기점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인원 감축으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죠. 전송을 하던 사람이 교환도 봐야 하는 등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만 했어요. 두 배로 불어난 업무를 소화하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회사가 원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정석종 조합원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미 자기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그가 정말 다재다능한 만능 기술자 '정반장' 이 되어 있는 것만 같다. 그가 가정을 꾸리면서 정했던 가훈은 '열심히 살자' 였다. 이렇게 평범한 가훈이 또 있을까. 그러나 이 한 마디 안에는 정석종 조합원의 정직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묵묵한 발걸음을 옮기는 '정반장', 그가 자랑스러운 이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전남지방본부 서광주 상무지부 SOHO 컨설팅팀 김재철 조합원



●
_ 영업에 뛰어들지 겨우 두 달째, 어느덧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워졌고 영업의 맛도 차츰 느끼는 중이다. 매일 발에 땀이 나게 매장을 돌아다니고, 고객과 지역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해 이를 현명하게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넉넉한 미소가 매력적인 김재철 조합원을 만났다.

_ 입사 30여 년째. 선로에서 교환, 무선, 전송까지 모든 업무를 섭렵해온 그이지만 사실 영업은 너무나도 생소한 분야였다. 두 달 전 조직개편을 통해 NSC 전송팀에서 SOHO 컨설팅팀으로 자리를 옮길 때만 해도 어찌야 하나 난감하기만 했다고. 하지만 김재철 조합원의 고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시기였기에 어찌면 이것이 또 다른 자신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 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자 미련은 사라졌다.

_ 앞만 보자 다짐하고 나자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자신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영업스킬이야 어차피 다양한 현장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이라 판단한 그는 우선 '하루 20개 매장 방문' 이라는

요즘은 일이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관계들 속에서 '나' 란 존재를 발견하는 기쁨이 커요.



●
기본목표를 세웠다. 매일 오전 10시 반 회사를 나와 그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이 원칙을 지켰다. 그리고 오후 5~6시까지 다시 회사에 복귀, 고객 분석을 비롯한 관련 업무를 9시까지 정리하고 집으로 향한다. 그렇게 부단히 노력한 결과 한달 만에 첫 고객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 주기는 일주일에서 며칠 간격으로 단축되기에 이르렀다.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100% 스스로 개척한 활로여서 그 뿌듯함이 남다른 그다.

"요즘은 일이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관계들 속에서 '나' 란 존재를 발견하는 기쁨이 커요." 쭈뼛쭈뼛 명함만 겨우 주고 나왔던 처음의 어색함이 무색할 만치 이젠 농담도 썩 잘 건네고 매장 주인의 고민도 귀에 담을 만큼 능글맞아졌다. 노력한 끝에 말투도 목소리의 톤도 가장 자연스러운 모양새를 갖췄다. 무엇보다 이제는 매장 주인이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넨 정도로 존재가 각인됐다 싶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나 둘 고객이 늘어날 때면 스스로 '진화'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절로 자신감도 생기고 차츰 '영업의 맛' 도

알아가는 중이다. 말이 20개 매장이지 정말 발에 땀나게 곳곳을 누빈 결과다.

_ 30여 년째의 근무경험을 통해 다양한 업무지식을 확보한 터라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설명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요즘 그가 몰두하는 것은 담당지역의 각종 현황과 정보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일이다. 업종별 분석에서 경기 활성화 지역 파악, 지역의 각종 현황을 분석에 이르기까지 공략대상을 연구하고 이를 영업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들 덕분일까. 두 달 만에 그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대단하다!' 가 됐다.

"경쟁사에 비해 '눈에 띄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가끔 하세요." 다양한 잠재고객들을 만나던 중 듣게 된 얘기가 이 부분만 충족된다면 영업에 훨씬 힘이 날 거라고 말하는 김재철 조합원은 그만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다. "물론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곧 KT이고 나를 판매한다는 생각으로 고객들을 만납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그의 요즘 좌우명은 당연하게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다.

노사 무한 협력으로 ‘흑자경영’ 달성했죠

KT텔레캅 노동조합



왼쪽부터 송영철 조직국장, 박정수 위원장, 김중희 사무처장, 김승헌 교섭실장

_ 박정수 위원장, 김중희 사무처장, 김승헌 교섭실장, 송영철 조직국장. 현재 KT텔레캅 노동조합을 책임지고 있는 일꾼 전부다. 단출하다고 생각하는가? 투박하고 거친 이 네 명의 손이 일군 역사와 만나보시라.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 과 ‘실행력’ 을 담보하기에 이보다 더 이상적인 조합도 없지 않다.

보안서비스 업계 유일의 토종 브랜드 KT텔레캅

_ 1998년 KT로부터 사업권을 인수, 무인경비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보안서비스의 대중화’ 를 선도하며 업계 선두그룹으로 발돋움한 KT텔레캅은 현재 KT의 전국적인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해 보안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토종 브랜드다. 지난 2006년 11월 KT링커스에서 분리, 독립한 KT텔레캅은 역사는 짧지만 2009년 기준 글로벌 고객만족도 평가(GCSI) 보안부문 4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KMAC) 4년 연속 우수 콜센터 선정이라는 위업을 달성할 만큼 고객의 든든한 신뢰를 받고 있다. 치열한 업계 경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한 결과지만 남다른

‘노사문화’ 역시 성장의 중요한 열쇠가 됐다.

젊은 조합원 확보 위해 다각적 노력 지속해

_ “직원의 70% 이상이 20대라 대다수가 노동조합의 필요성 자체를 공감하지 못했죠. 하지만 전 오히려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아직 ‘빈 그릇’ 이라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낙관한 박 위원장은 2007년 1월 초대집행부가 꾸려지자마자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모색하고 확보했다. 경영진이 직접 주관한 경영설명회가 월 2회 이상 개최되고, 월 1회 이상 경영분석회의를 통해 캠페인 실시, 우수기관 교류 견학 등 노사가 함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였으며, 다양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작업장 환경개선, 고충처리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되었다. 어느덧 1,810명의 직원 중 1,038명이 조합에 소속, 연말까지 1,200명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 중이다.

노사 무한 협력 선언으로 흑자경영 달성

_ KT텔레캅은 지난 해 노동조합으로서는 파격적으로 ‘무쟁의, 무분규’ 를 선언했다. 회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상생의 노사관계라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연수원에 모인 51개 전국 지부장들을 한 명 한 명 모두 만나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요.” 쉽지만은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KT텔레캅의 사업 특성상 출동 및 영업직 등 고객접점의 현장 근로자가 80%나 되는 터라 노사분규 발생 시 고객 서비스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타결된 ‘2009 노사 무한 협력 선언’ 을 통해 KT텔레캅은 지난 해 ‘노사 상생협력대상

우수기관’ 으로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마침내 흑자경영 원년을 실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임금도 소폭 상승했지만 직원 복지도도 고무적인 성과를 낳았다.

‘투쟁만이 살길이다’ 그 옛날 노동운동의 역사가 시작되고 노동조합이 설립될 무렵부터 한결같이 현장과 함께했던 외침이 오늘, 문득 같 길을 되묻는다. 상생협력을 통해 공존공영의 해법을 마련하고 노사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 KT텔레캅의 앞으로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interview _ KT텔레캅노동조합 박정수 위원장

“회사를 떠난 개인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표도 직원들의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수시로 현장 전뒀대를 타는 것도,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커피를 건네는 것도, 직원의 농담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는 것도 직원과의 보다 친밀한 교류를 위한 ‘가족공동체’ 사고의 시작이다. 박정수 위원장에게 회사와 직원은, 노조와 조합원은 모두 ‘가족’ 같은 관계다. 집에 썩이 떨어졌는데 투정한다고 해결될 건 없다는 거다. 결국 모든 협상의 끝에서 그가 염려하는 것은 ‘직원’ 이고 이는 곧 ‘가족’ 이다. KT링커스 3대~9대 지부장을 거쳐 현재 2대 위원장에 연임되기까지 22년을 노조에 몸담고 있는 그가 그야말로 오랜 세월 고민하고 체득한 노조 활동의 기준이 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람’ 이기에, 이 낯설고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해낸 그의 독심이 조합원들의 고른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연을 벗 삼아 페달을 밟다



올여름은 유난히 비가 잦았다. 여름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갑작스런 폭우와 소나기로 많은 이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렇듯 변덕스런 여름도 서서히 물러나고, 어느덧 코앞까지 다가온 가을이 슬며시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높게 솟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솜사탕처럼 흩뿌려져 있던 어느 날, KT-MTB동호회원들이 라이딩에 나섰다. 높은 하늘, 청명한 공기, 탁 트인 시야, 가을 향기... 라이딩하기에 최적의 날씨였다.

MTB만 있으면 어디든 간다!

_ 주말의 이른 아침, 반짝반짝 빛나는 MTB에 컬러풀한 고글과 멋스러운 헬멧 등을 갖춘 KT-MTB동호회원들이 대전 올림픽국민생활관 앞에 모였다. 10여 명의 회원들이 훌쩍 다가온 가을을 즐기며 가수원네거리와 흑석리를 거쳐 장안동 장태산휴양림으로 자전거를 달렸다. 오랜만에 맑게 갠 날씨에 모두가 상쾌한 표정이다. 도로변에는 코스모스가 살포시 얼굴을 내밀고, 누렇게 물든 들녘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1시간 남짓 라이딩을 마치고 도착한 곳은 장태산휴양림.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식당 앞마당에 12대의 MTB가 차곡차곡 포개졌다. 이어 시원한 물로 더위와 갈증을 달래는 회원들. “라이딩 후 먹는 밥은 꿀맛, 마시는 물은 보약”이라는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난 2002년에 결성된 KT-MTB는 대전 마케팅단 소속 재직자와 퇴직자 22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동호회장을 맡고 있는 대전 마케팅단 유성지부 특별기동팀의 이상국 팀장을 주축으로 12명이 모여 결성했다. MTB는 마운틴 바이크(mountain bike), 이름 그대로 산악자전거를 말한다. 도로는 물론 산의 임도(소방용 산림도로)와 험준한 산악지형을 마음대로 다니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만능 운동기구지만,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의 회원들이 대부분인 KT-MTB에서는 편한 도로와 들판과 같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크로스컨트리를 위주로 활동한다. 회원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대전 인근의 야산이나 도로를 따라 80~100Km의 라이딩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4년 경력의 대전 마케팅단 유성지부 특별기동팀의 이갑훈 조합원은 “자연을 벗 삼아 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주변 경치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며 “자전거만 있으면 산과 들은 물론 섬까지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장학기금 모금 등 다양한 활동 눈길

_KT-MTB는 회원들과 함께 라이딩으로 건강과 우의를 다지는 한편, 다양한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지난 2006년부터 역점 추진해온 대전보건대학 장학기금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해마다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실시하는 208Km 자전거 라이딩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됐다. 대전보건대학 교정에서 출발해서 옥천과 대둔산을 지나 운주, 양촌, 공주, 부강, 신탄을 경유해서 대전으로 돌아오는 이 행사는 13시간 동안 208Km를 달려야 하는 고된 라이딩이다. 대전·충청지역의 명산인 대둔산과 계룡산을 자전거로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 탐돌이 행사. 여기에는 가족과 구성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회원들은 라이딩을 하고, 라이딩을 접한 후원자들은 대전보건대학의 장학기금통장에 직접 기부를 한다. 올해까지 총 5회에 걸쳐 약 6,400만 원이 학교에 전달됐다. 장학기금 목표 모금액은 1억 원. 목표액을 달성하면 대전보건대학 장례지도과 입학생 전원에게 1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KT-MTB는 지난 8월 27일에 자전거 마일리지 적립시스템을 특허 등록해 또 한 번 주목받았다.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수신기를, 자전거 프레임에는 센서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타고 달린 거리와 시간 등을 자동으로 호스트로 전송하는 것.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를 탄소배출권과 바꾸거나 서점, 영화관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이 상용화될 경우 자전거 동호인의 저변 확대는 물론 KT의 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자전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고, 동호인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며 힘차게 페달을 밟는 KT-MTB동호회원들. 그들과 함께 MTB의 매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튼튼한 체력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또, 자전거를 타면서 각 동호회의 여러 친구들을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활동영역이 폭넓어져 개인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KT-MTB 김철재 조합원 인터뷰

“MTB로 건강과 활력을 충전합니다!”

_KT-MTB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대전 마케팅단의 김철재 조합원은 “젓은 음주로 체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MTB를 시작한 후 체력이 부쩍 향상됐고 체중도 줄었다.”고 털어놓는다.

“저희 동호회원들은 늘 활기찬 기운이 넘치고 회사 업무나 조합의 일은 물론 모든 대외활동에도 무척 적극적입니다. 튼튼한 체력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또, 자전거를 타면서 각 동호회의 여러 친구들을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활동영역이 폭넓어져 개인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MTB 가격에 부담을 느껴 선뜻 입문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에게 김 총무는 “처음에는 집에 있는 일반 자전거를 끌고 나오라”고 조언한다. 다만, 헬멧, 고글, 장갑 등의 보호장구는 반드시 착용하고, 자전거 체인에 옷이 닿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준비할 것을 권한다. 그렇게 몇 번 회원들과 어울려 타 본 후에 초보자용으로 60만 원대의 MTB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라이딩의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고.

“보통 자전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안전장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MTB는 무척 역동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바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장구에 더 투자해야 합니다. 조금 숙달이 됐을 때 평페달을 클립페달로 바꿔서 사용하면 MTB에 정식으로 입문했다고 볼 수 있지요.”

일주일 내내 쌓인 스트레스를 단박에 씻어내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 김철재 총무는 그 해법을 MTB에서 찾았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충남지방본부 대전마케팅단지부 김철재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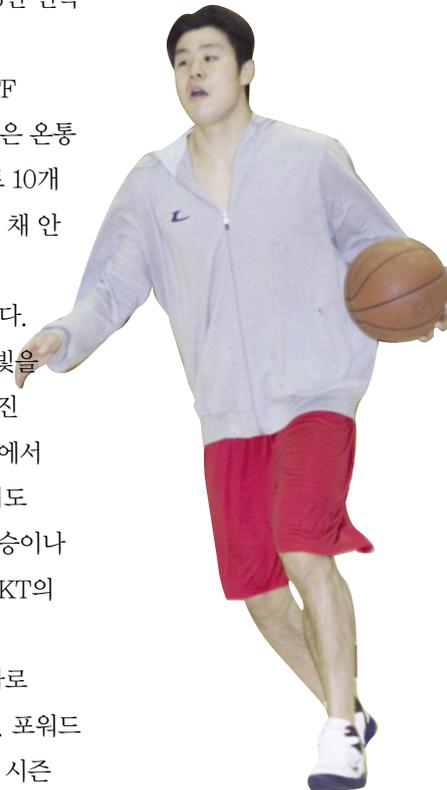
다가오는 시즌엔 우승뿐이다!

KT 소닉붐 농구단

프로농구 2010-2011 시즌이 코앞이다. KT 소닉붐 농구단은 지난 시즌 꼴찌 팀에서 기적처럼 준우승을 일궈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다시금 농구 시즌이 다가오면서 농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 지난 9월 15일 개관한 KT 소닉붐 전용체육관 올레 빅토리움에서 그 주인공들을 만났다.



- KT 소닉붐 농구단은 2004년 부산을 연고지로 프로농구 리그에 데뷔했다. 2004-2005 시즌부터 6강 플레이오프에 오르며 농구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신홍 명문 구단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2009년 6월에는 KT와 KTF가 통합하면서 명장 전창진 감독을 영입하면서, 'KTF 매직윙스' 라는 이름을 버리고 현재의 구단명을 얻게 된다. 그러나 농구계의 관심은 온통 다른 구단들에 쏠려 있었다. 2008-2009 시즌에 12승 42패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10개 구단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제 아무리 전창진 감독이라도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꼴찌를 상위권에 올려놓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잘해야 6강, 이것이 KT 소닉붐 농구단을 바라보는 당시의 시선이었다. 하지만 2009-2010 시즌의 막이 올랐고, 시간이 흐를수록 KT 소닉붐 농구단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40승 14패라는 전대미문의 성적표는 전창진 감독을 비롯한 각 선수들의 투혼을 대변해주었다. 장신 선수가 부족했던 상황 속에서 전창진 감독의 조직력을 강조한 농구, 발로 뛰는 농구가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기도 했다. 비록 승률이 같았던 울산 모비스와 골득실에서 뒤져 준우승에 그쳤지만 우승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올레 KT' 출범 첫해에 이룩한 업적으로, 통합된 KT의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시즌 포인트가드 표명일 선수(182cm)는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력과 중거리 뱅크샷, 철통같은 수비력이 장점이다. 포워드 김도수 선수(193cm)는 동료의 스크린을 이용한 영리한 플레이가 돋보인다. 지난 시즌



막판에 입었던 허리 부상도 완쾌되었다. 당시 KT노동조합이 위로의 동영상 만들어 보내기도 했고, 김구현 위원장이 직접 위문을 가기도 했던 선수로, 그가 부상의 아픔을 딛고 얼마나 컨디션을 회복했느냐가 관건이다.

장신의 센터인 찰스 로드(200.3cm) 역시 이번 시즌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이다. 이외에도 2010 아시안게임 대표선수로 발탁된 조성민을 비롯해 양우섭, 조동현, 송영진, 박상오, 임영훈, 윤여권, 박성운, 최민규, 전병석, 제스퍼 존슨까지 올 시즌 우승을 향한 의지를 뜨겁게 불태우고 있다.

전창진 감독은 “구단, 선수, 감독, 부상 문제 등 다방면에서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우승이 가능하고, 또 운도 따라주어야 한다. 작년보다 더 많은 훈련을 했고, 핵심 선수들의 빈자리를 메워줄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한다.”면서 “녹록치는 않지만 감독으로서 이번 시즌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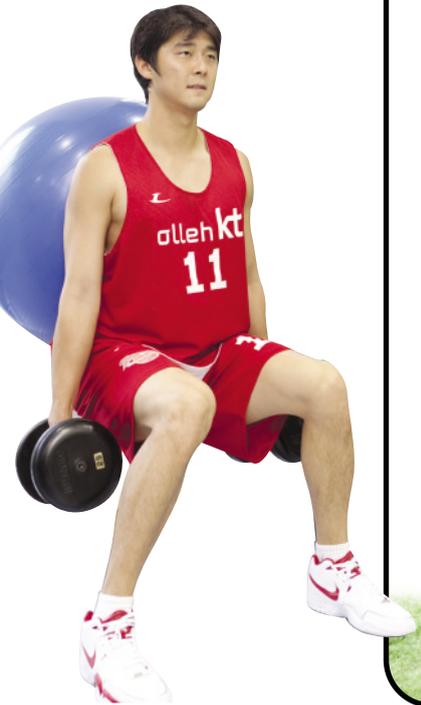


interview _ KT 소닉붐 농구단 전창진 감독

올레 빅토리움 감독실에서 만난 전창진 감독은 수업을 멈추듯하게 기르고 있었다. 지난 시즌 ‘꿀찌의 대반란’을 일으키며 팀의 준우승을 이끌었던 그의 어깨가 무거운 시점. 길게 자란 수업은 2010-2011 시즌이 시작되면 말끔히 면도를 하고 우승을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는 자신과의 다짐이다. 그가 농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이다. 이후 선수와 코치, 감독의 길을 걸어오며 농구 이외에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 35년에 이르는 외길 인생이었다. KT 소닉붐의 감독을 맡기 전 다른 3개 팀과 계약 문의가 오고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KT에서 감독 제의가 들어왔고 미련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감독직을 맡은 후 선수들을 만나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부상 선수들도 많았고, 더욱 큰 걸림돌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였다. 워크숍을 열어 선수들 간의 분임토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등 일방적인 통보와 명령이 아닌,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열었다.

감독과 선수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동반자’라는 그의 철학은 지난 시즌 팀을 우승과 다름없는 준우승으로 이끌었다. 전창진 감독에게 있어 KT 조합원들은 또 하나의 동반자이다. 올레 빅토리움 개관으로 전용 체육관이 마련된 것이나 올레건의 열렬한 응원은 이번 시즌 우승을 향해 가는 길에 큰 힘을 실어준다. “올레 빅토리움이 생겨서 전세 살다가 아파트를 산 것처럼 기쁘요. 또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KT 조합원들이 있어 우승으로 가는 발걸음이 더욱 가볍습니다.”



농구 응원문화의 새바람 KT 소닉붐 응원리더 ‘올레건’



_ 2010-2011 농구 시즌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은 선수들만이 아니다. 격렬하기까지 한 울동으로 응원의 열정을 불사르는 그들, 바로 KT 조합원들로 구성된 응원단 올레건(ollehgan)이다. 올레건은 승리를 위한 최고의 감탄사 olleh!와 열광적인 스포츠팬들을 의미하는 훌리건(hooligan)에서 따온 말로 KT 소닉붐 응원단의 이름이다.

지난 시즌 끼가 넘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올레건(ollehgan)들이 캠핑카를 타고 원정 응원에 나섰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KT 조합원들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난 7월 올레건 모집 공고를 보고 전국에서 50여 명의 조합원들이 대전 인재개발원에 모여들었다. 각자의 장기를 뽐내며 오디션을 보았고, 끼와 열정이 넘쳤던 그들 대부분이 올레건이란 이름으로 팀을 이루었다.

올레건들은 지난 8월부터 혹독한 세 차례에 걸친 합숙 훈련에 돌입했다. 응원단장과 치어리더들의 시범 아래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된 것이다. 스텝이 꼬이고, 박자를 놓쳐 허둥거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었다. 3번의 전체 합숙훈련에 더해 월 2회 가량의 지역 팀별 훈련까지, 즐거운 연습 시간이었지만 몸살이 나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올레건에 선발된 서울 광화문지부의 염희경 조합원은 “이번 합숙 기간 동안 올레건으로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만큼 시즌 경기 때 많은 KT 조합원들이 찾아주셔서 함께 경기와 응원을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부산 사하지부의 최진석 조합원도 “지금 우리 지사는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올레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팀원들에게 고마워요. 그 배려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농구장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 올레건 응원단은 10월 16일 개막전에 총 출동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이후 지역별로 6개 팀으로 나눠 서울, 부산, 대구, 원주, 전주, 안양, 창원 등지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치게 된다. 이번 농구 시즌에는 올레건과 함께 농구 코트에서 승리의 ‘올레!’를 외쳐 보는 것은 어떨까?

여름휴가 사진 콘테스트



● **‘로저 무어’가 부럽지 않다니까요!**
 본사지방본부 수도권무선마케팅지부
 강서무선마케팅담당 강서영업지원팀 조경호

_ 아내와 함께 태국 푸켓으로 결혼 11주년 기념여행을 떠났습니다. 기기묘묘한 석회암 섬과 처녀림 정글이 태고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광야만, 그중에서도 ‘제임스본드 섬’은 특히 환상적이었습니다. ‘로저 무어’ 주연의 영화 007시리즈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의 라스트 신 촬영장소로 유명하죠. 믿거나 말거나, 아내와 손을 맞대고 사랑의 힘으로 저 섬을 거뜬히 들어 올렸습니다.



● **핑 대신 닭? 핑보다 닭이 좋아요**
 서부지방본부
 안산지부 고객컨설팅1팀 김덕기

_ 여름여행의 1번지는 동해안! 아내와 함께 속초에 갯배 타러 갔다가 폭우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KT인이 아니죠. 핑 대신 닭이라고 냇가에서 뗏목 타고 더욱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한바탕 웃고 즐기는 사이 아내도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까지 맑아졌습니다. 갯배 탈래? 뗏목 탈래? 당연히 뗏목이죠!



● **무더위는 날리고 화합은 다지고!**
 충남지방본부
 대전지부 CER팀 김경찬

_ 여름 한복판, 대전지부 가족들이 영동 옥동계곡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침병침병 물놀이를 즐기면서 친해진 아이들, 시원한 물가에서 담소를 나누며 돈독해진 엄마들, 가정과 직장 사랑에 의기투합 뽕뽕 뭉친 아빠들... 직접 잡은 물고기와 삼겹살을 구워먹고, 이 집 저 집에서 싸가지고 온 음식을 나눠먹으며 화끈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절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 **여기는 첩첩산중! 도시여 안녕~ 더위도 안녕~**
 충남지방본부 중부네트워크운용단지부
 집중운용센터 충남기술팀 이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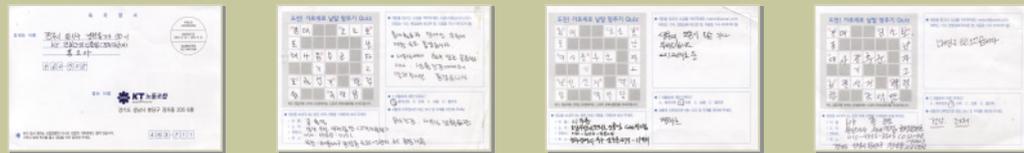
_ 온 가족이 정선 KT하계휴양소에서 알콩달콩 여름휴가를 즐겼습니다. 여행 둘째 날 오른 야생화 군락지 함백산 만항재. 해발 1,330m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오를 수 있는 포장도로 중 가장 높은 곳입니다. 삼복더위에도 초가을처럼 선선, 산 정상까지 트래킹을 즐겼는데도 땀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딸들에게 여행 소감을 물었더니 “아빠 최고! 올레 KT 최고!”

Voices of Readers

독자엽서 당첨자

홍은아 전북 전주시 완산구 KT전북고객신용팀
 배중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지점
 이두훈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문원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KT송정사옥
 강성룡 전남 목포시 호남동 KT전남마케팅단
 윤태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KT송정사옥
 이천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박래혁 전남 목포시 호남동 KT전남마케팅단
 한수정 전남 목포시 호남동 KT전남마케팅단
 홍갑표 서울 양천구 목2동

최영란 부산광역시 동구 KT부산사업지원센터
 옥명당 부산광역시 동구 KT부산사업지원센터
 박지연 서울 양천구 목1동 KTICC
 최지영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이인숙 전북 전주시 완산구 KT전국고객신용팀
 정재용 전북 전주시 경원동 KT전주지사
 최승규 서울시 성북구 KT월곡지사
 송순호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홍훈표 충북 제천시 명동
 이광우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2동



PUZZLE

가로열쇠

- KT노동조합의 호스트(HOST)운동과 노사가 함께하는 창조적 新노사문화 프로그램 명칭, HOST to Olleh.
- 여러 대(代)에 걸쳐 분가(分家)를 한 경우에 분가의 본가(本家).
- 중세와 근대 사이(14~16세기)에 서유럽 문명사에 나타난 역사 시기와 그 시대에 일어난 문화운동.
- 외떡잎식물 난초목 난초과의 여러해살이풀, 하늘에서 떨어져 마비가 되는 증상을 치료하였다는 뜻.
- 무려 1975년부터 빙그레에서 만드는 플אי스크림의 원조.
- 남을 돕는 일. 비슷한 말 : 우조(佐助).

세로열쇠

-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 아기를 시주하여 넣었다는 전설의 종.
-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 평 깃털을 모아 만든 빗자루로 깃털의 뿌리 부분을 모아 엮고, 지승망으로 감싼 뒤에 자루에 연결한 조선시대 장식.
- 주기변동의 폭이 상하로 심하게 나타날 때 가장 고가권의 주기수준을 말함. 성인 남자가 꾸민 머리 모양.
-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미(美)와 풍요(豊饒)의 여신. 원래 로마 여신의 이름.
- KT 소식록 농구단의 전용 체육관 이름.

도전!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Quiz

1	1		6				10
2	3					8	8
	4		7				
5							9

퀴즈 정답자중 선착순 00명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독자엽서란에 퍼즐 정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아버지의 목마

어릴 적, 당신의 어깨 위에서 목마를 타고 내려다 본 세상에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힘센 사람이고, 가장 용감한 사람이고,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그 시절의 당신 나이가 되고 보니, 가족을 위해 무거운 짐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오신 그 버거운 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린 자식은 젊은 부모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다 자란 자식은 또 다시 늙은 부모의 걱정과 기도를 먹고 산다던가요? 나는 이제, 아버지가 왜 늦은 밤 엷은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와 가만히 내 이마를 쓰다듬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